

브레히트의 시각으로 魯迅읽기

— <아큐정전>과 <억척어멈과 그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

김경석*

◁ 목 차 ▷

- I. 들어가는 글
- II. 풀어놓는 글
 - 1. 아큐형상의 민중적 보편성
 - 2. <아큐정전>의 '낯설게 하기'
 - 3. 아큐와 억척어멈-臣民의 자기배반
- III. 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20세기 초엽 중국의 인문학사는 민족에 대한 재인식과 개인의 발견이라는 명제를 놓고 고민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중국민족에게 시련기이도 하지만, 한편으로 중화주의적 세계관을 탈피하여 세계문명사로 시선을 돌리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전통문화에 대한 성찰과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담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성찰의 기회를 통해 '중국민족'은 스스로를 타자화 시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 이 성찰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20년대에는 '아큐'라는 문학형상이 탄생할 수 있었다.

브레히트의 시각에서 <아큐정전> 읽기는 중국민중의 속성이 문학 속에서 어떻게 표상화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동시에 아큐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중국적 특수성과 민중적 보편성의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브레히트의 '낯설게하기'를 통해 <아큐정전>을 고찰해 보는 것은 고전소설과는 다른 魯迅의 리얼리즘 소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경희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민중이 정치적 객체로 남아있는 한, 민중은 자신에게 닥친 일을 일어날 수도 있는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민중은 해부대에 있는 개구리가 생물학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재앙으로부터 배우는 바가 없다.¹⁾

위와 같이 민중을 바라보는 브레히트의 시각은 냉정한 정도를 넘어서 냉소적으로 느껴진다. 민중과 역사의 상관관계에 대한 브레히트의 정의는 ‘역사창조의 주역’이라는 민중에 대한 개념을 여지없이 뭉개버리는 듯하다. 다음 魯迅의 말을 본다면 브레히트의 민중인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폭군의 폭정으로부터)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희생물을 뽑은 다음, 폭군 통치하의 피에 굶주린 臣民들의 욕망에 갖다 바친다. 하지만 누구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다만, 죽는 자는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를 뿐이고 살아남은 자는 기뻐할 따름이다.²⁾

이처럼 아큐는 무지한 민중이지만, 그는 봉건사회가 규정한 계급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고통도 참을 수 있으며 침묵할 수 있었다. 브레히트가 말한 것처럼 아큐 역시 자신을 억압하는 사건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며, 브레히트의 민중인식 속에서도 魯迅의 창작사상의 명제라고 할 수 있는 ‘哀其不幸 怒其不爭’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가 정의하고 있듯이 魯迅의 창작사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작품은 〈아큐정전〉일 것이다. 〈아큐정전〉이 발표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魯迅이라는 인물의 근대사적 의미와 문학사적 가치가 연구되어 왔고 이를 통해 중국의 ‘근대적’ 민중의 개념이 인식되고 정립되었다. 물론 魯迅의 말대로 그의 작품은 ‘국민성개조’를 화두로 삼고 있다. 魯迅의 대표작인 〈아큐정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중국민족에 대한 특수성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편중되어 있어서, 민중의 보편적 속성에 대한 각도에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연구시각의 편협함은 魯迅의 리얼리즘적 성과를 간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인에게만 대상화 된 비판적

1) 브레히트: 한일섭 편저,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년, 362쪽.

2) 〈暴君의 臣民〉, 《熱風》: “從‘幸免’里又選出犧牲, 供給暴君治下的 臣民的渴血的慾望, 但誰也不明白. 死的說‘阿啊’, 活的高興着.”

관점의 시각을 넘어서 중국의 민중 아큐가 살아왔던 자기배반의 삶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브레히트의 시각을 빌어서 〈아큐정전〉을 ‘再論’해보고자 하며, 이는 본고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있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II. 풀어놓는 글

1. 아큐형상의 민중적 보편성

아큐의 내면의 본질을 고찰해 본다면 반봉건반식민지 중국사회의 모순이 총체적으로 체현된 인물인 동시에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하층민중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아큐정전〉을 드라마나 영화로 재현하고자 하는 많은 연출자들은 과연 중국민중의 전형이었던 아큐의 외모는 어떠했을 지에 대해서 고민하였다. 魯迅은 아큐의 이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아큐는 삼십세 가량의 평범한 외모에 농민의 순박함과 어리석음이 있으며, 건달들의 교활함에도 물들어 있는 인물이다. 상해의 인력거꾼 가운데 아큐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불량배나 불량아들과는 다르다.³⁾

그러나 당시 중국의 하층민중이 모두 아큐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동시대 북경의 인력거꾼 祥子(장자)는 여러 각도에서 아큐와 비교해 볼 수 있는 형상이다. 두 인물형상은 우선 다음과 같은 매우 두드러진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아큐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외모도 볼품없으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의지도 없다. 祥子(장자)는 매우 건장하고 힘이 좋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체면도 지킬 줄 안다. 이렇게만 본다면 둘은 서로 전혀 다른 인물형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두 인물형상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고찰해 본다면 그들의 상반된 외모와는 달리, 진면목은 같은 영혼을 지닌 반봉건반식민지 시대의 중국민중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3) 〈奇戲'週刊編者信〉, 《且介亭雜文》: “我的意見, 以爲阿Q該是三十歲左右, 樣子平平常常, 有農民式的質朴, 愚蠢, 但也很沾了些游手之徒的狡猾. 在上海, 從洋車夫和小車夫里面, 恐怕可以找出他的影子來的, 不過沒有流氓樣, 也不像癩三樣.”

들의 전혀 다르게 보이는 외형은 오히려 동일한 삶의 궤적으로 귀결된다.⁴⁾ 그러나 이 두 인물형상 속에서 時空을 넘어서는 민중적 보편성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특징은 아큐에게 더욱 전형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아큐는 未莊이라는 강남 농촌의 낱포팔이 농민이며 魯迅이 말했듯이 그다지 젊은 나이라고 볼 수는 없다.⁵⁾ 아큐는 외모도 보잘 것 없는 빈농일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릿속은 게으름뱅이의 교활함과 어리석음으로 가득하다. 또한, 그의 삶은 늘 승리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승리병을 앓고 있다. 한마디로 아큐는 비뚤어진 정신상태의 잉여자적 삶을 살아가는 농촌의 빈민으로 본질적으로 자각하지 못한 민중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역사적 환경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아큐와 같은 특수한 성격은 농민들 가운데서 흔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정신적으로 굴욕을 감수하는 의기소침한 상태는 당시의 농민들에 있어서 보편적이었다. 그 다음으로 자급자족하는 자연경제의 환경 하에서는 자기만족의 심리상태에 빠져들기 쉽다. 오랜 봉건적이고 폐쇄적인 환경 하에서는 작은 나라 적은 백성이 좋다는 소국과민의 편협한 관념이 싹터서 고루한 무지, 편협한 오만, 맹목적인 배척에 사로잡힌다.⁶⁾

아큐뿐만 아니라 魯迅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봉건적 사고방식은 가족의 가치를 지상으로 여기는 유교사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중심주의를 중시해 왔다. 그러므로 개인의 가치는 가족의 구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왔고, 전통적 인륜관계의 부속품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평

4) 김정석, 〈駱駝祥子'에 대한 몇 가지 재론〉, 《中國小說論叢》 제31집, 한국중국어소설학회, 2010년, 399쪽.

5) 魯迅은 아큐의 나이를 서른 살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老舍는 〈駱駝祥子〉 도입부에서 祥子の 나이를 20이 채 안된 젊은이로 묘사하고 있다. 〈駱駝祥子〉는 장편소설로서 상자의 일생을 중년까지 다루고 있다. 〈駱駝祥子〉: “그는 나이에 비해 키도 크고 근육이 발달되어 있었다. 20살이 채 안되었으나 이미 매우 건강하였다(他的身量與筋肉都發展到年歲前邊去; 二十來的歲, 他已經很大很高).”

6) 黃修己: “阿Q這樣特殊性格在農民中可能是少有的, 但象他這樣精神上自甘屈辱的消沈狀態, 在當時的農民中又是普遍的. 其次, 自然經濟下自給自養的生活, 也容易產生自滿自足的心理. 在長期的封閉性的環境里, 又養成那小國寡民的偏狹觀念, 孤陋寡聞, 夜郎自大, 盲目排外.”,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88年, 67쪽.

생 개인의 자유란 망각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오히려 가족중심주의는 개인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를 영위케 하는 근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魯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중국인의) 권위라는 것도, 본래는 중국인들의 유일한 호신부적인 '祖宗'에 의지해서 유지하는 것일 뿐, '祖宗'이 훼손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⁷⁾

작품에서 아큐는 토지묘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지만, 아큐 역시 개인의 승패는 가족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다. 결국 아큐는 未莊의 세도가 趙太爺의 권위에 기대고자 시도한다. 아큐는 趙太爺의 아들이 수재에 급제하자 그의 후광을 입기 위해 조씨네와 한 집안이라고 했다가 趙太爺에게 뺨을 맞는 망신을 당하고 후광을 입는데도 실패한다. 이 대목을 통해서 아큐 역시 개인의 흥망은 가족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큐는 여성에 대한 애정을 경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그에게 있어서 여자는 대를 잇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계급적 입장과는 상관없이,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不孝有三無後爲大)'라는 봉건적 관념에 빠져있다. 그에게 여자는 단지 출산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아큐는 대를 잇는다는 가족관념 앞에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자각은 기대할 수 없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 퇴적되어온 중국의 문화는 이미 인간중심이라기 보다는 그 문화 자체가 중심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브레히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구출되면 문화가 구출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화를 위해서 존재하고 문화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자!⁸⁾

도덕관념에 있어서, 아큐는 자신들을 억압하는 계급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노예

7) 〈論'她媽的'〉, 《墳》: "勢位聲氣, 本來僅靠了'祖宗'這惟一的護符而存, '祖宗'倘一被毀, 便什麼都倒敗了."

8) 브레히트, 〈아만성에 대한 투쟁을 위해서 필요한 확인〉, 안 크노프 저, 이원양 역, 《베르톨트 브레히트》(인물과 사상사, 2007년) 74쪽에서 재인용.

근성을 드러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와 가족 관념에 있어서 개인은 정치 경제적으
로 촘촘하게 짜여진 사회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결국 그 그물망의 희생물이 되기 일쑤였다.

우리(중국인들)에게는 이미 알맞게 부여받은 위치가 있다. 貴賤이 있고, 大小가 있으며, 上下가 있다. 자신이 남에게 능멸을 당하기도 하지만, 남을 능멸하기도 한다. 자신이 남에게 먹히기도 하지만 내가 남을 삼키기도 한다. 계급별로 통제가 엄격해서 꿈쩍도 할 수 없으며,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꿈틀거리기라도 하면, 비록 어떤 이익이 있을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해악이 따른다. 우리는 옛사람의 훌륭한 법도와 미덕을 따르면 될 뿐이다.⁹⁾

아큐는 趙太爺에게 조씨성을 가질 권리를 빼앗기고 나서도 오히려 한동안 마을에서 의기양양하고, 假洋鬼子에게 哭喪棒으로 얻어맞고 나서도 오히려 한결 홀가분해진 느낌에 빠진다. 그러나 아큐는 자신과 계급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王鬍나 小D와의 싸움은 그다지 개운치 않다. 아큐에게 있어서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계급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층민중 아큐에게 체화된 자기소외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는 그의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노동 속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떠나 있다고 느낀다.¹⁰⁾

아큐는 시대인식의 수준에 있어서도 매우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地大物博'과 같은 중화사상에서 도취되어 외부세계에 대해서 철저히 배타적이거나 굴욕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모든 사유는 내부에 고정되어 있었고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진취성과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9) 〈燈下漫筆〉, 《墳》: “但我們自己是早已布置妥帖了, 有貴賤, 有大小, 有上下. 自己被人凌虐, 但也可以凌虐別人; 自己被人吃, 但也可以吃別人. 一級一級的制馭着, 不能動彈, 也不想動彈了. 因爲倘一動彈, 雖或有利, 然而也有弊. 我們且看古人的良法美意罷.”

10) 칼 마르크스, 최인호 역,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년, 73쪽.

중국인은 이민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두 가지 호칭만 썼을 뿐이다. 하나는 ‘오랑캐(禽獸)’이고, 하나는 폐하(聖上)이다. 이제까지 이들을 친구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다.¹¹⁾

아큐는 비록 성내에 가서 신해혁명 전야의 ‘근대’라는 공기를 접하고 왔지만, 그의 근대에 대한 경험은 그의 봉건적인 권위와 허세를 높여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아큐와 錢씨 영감의 아들인 假洋鬼子도 본질적으로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다. 아큐는 未莊의 전통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고루하다. 하다못해 성내 사람들과 나무걸상에 長凳과 條凳의 명칭이 다르든지, 전어 요리에 얹는 파 썬는 방법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조차 거슬리는 것이다. 그는 남녀의 구별 또한 엄격하여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아도 의심과 분노의 눈길을 보내며 심지어 돌팔매질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조차 떳떳치 못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큐의 의식 속에는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전통문화의 침전물이 내면화되어 있다.

아큐는 온갖 굴욕을 당하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되지만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변명에 가까운 합리화만 늘어놓을 뿐이다. 또한, 여전히 직감적으로 판단하며 그 원인을 자신과 계급적 입장이 같은 小D가 자신의 밥벌이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한다. 결국 아큐는 정신의 승리를 추구하다가 육체의 붕괴까지 맞이하게 된다. 魯迅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다양하고 계급적으로 대척점의 삶의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중국의 전통문화 속에서 공통된 사유의 궤도를 가고 있다. 이들이 믿고 있는 최후의 보루는 모두 정신승리법인 것이다. 결국 이들 역시 아큐와 같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뿐이다. 자기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중국민중의 말로는 과정과 관계없이 같은 결과를 낳게 될 뿐이다. 권력의 멸시와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아큐와 마찬가지로 나약한 자를 향해 분풀이를 한다. 때로는 자신의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자기학대를 통한 카타르시스를 상상한다. 결국 사회적 멸시의 분노를 자신이나 약자에게 풀고 나서야 마음의 평정을 조금이나마 찾게 되는 것이다. 어두운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없게 되면 현실에 대해서 왜곡과 미화를 시도함으로써 스스로 안위를 얻고자 한다. 계속되

11) 《隨感錄四十八》, 《熱風》: “中國人對於異族, 歷來只有兩樣稱呼: 一樣是禽獸, 一樣是聖上. 從沒有稱他朋友, 說他也同我們一樣的.”

는 굴욕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원인모를 죽음조차도 숙명론적 인생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이때 그는 펄떡 이것은 목을 자르러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웅 소리가 나며 금방이라도 실신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실신한 게 아니었고 때로는 허둥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리어 태연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天地之間에 살아가는 이상은 때로는 목을 잘리는 경우도 있다고 느끼는 듯 했다.¹²⁾

아큐는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정신승리법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노예가 되고 싶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확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러한 아큐의 특성은 小D나 王鬚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큐는 성조차 모르는 최하층 농민으로 늘 계급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동료들조차도 그를 멸시하고 학대한다. 그에게 유일한 출로는 정신승리법으로, 환상과 착각 속에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소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그 역시 자신은 분명한 이유도 모르는 채 최후를 맞이한다.

2. 〈아큐정전〉의 ‘낯설게하기’

낯설게하기는 브레히트가 제창한 연극의 기법이다. 독일어 *vefremdung*은 여전히 소외, 이화, 소격, 생소화 등 여러 가지 우리말로 번역되고 있고 다소 혼용되기도 한다.¹³⁾ 브레히트도 초기에는 낯설게하기를 헤겔과 마르크스를 통해 정립된 소외(*entfremdung*)와 혼용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헤겔과 마르크스의 소외와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vefremdung*을 소외로 이해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12) 〈阿Q正傳〉: “但他突然覺到了這豈不是去殺頭么? 他一急, 兩眼發黑, 耳朵里噹的一聲, 似乎發昏了, 然而他又沒有全發昏, 有時雖然着急, 有時却也泰然; 他意思之間, 似乎覺得人生天地間, 大約本來有時也未免要殺頭的。”

13) 국내에 소개된 많은 브레히트 이론서들은 *vefremdung*을 ‘소격’ 또는 ‘소격효과’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물론 *vefremdung*의 다양한 번역어들은 모두 역자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루迅과 브레히트의 창작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자 하므로 ‘낯설게하기’의 개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소외는 일반적으로 마르크스의 ‘소외’를 떠올리므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 외에 이화, 생소화 등이 있으나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본 논문의 논지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본다.

낯설게하기의 목적은 관객에게 연극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검토해 보는 비판적인 태도를 길러주려는 데 있다. 낯설게하기 효과의 사용의 전제조건은 무대와 관객석에서 모든 마술적인 요소를 말끔히 씻어내고 최면에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¹⁴⁾

브레히트의 의도는 관객 스스로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발견하는 것이며 낯설게하기는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객 스스로 무대 위에 묘사된 사건이나 묘사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작품 속에 인간과 사회를 그려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魯迅 역시 독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고전소설을 보는 것과 같은 몰입효과가 아니었으며 소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다. 독자들에게 많은 사회의 문제들을 제시하며 그 문제들을 양산해내는 본질에 주목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魯迅은 소설과 독자의 관계에서 독자가 독자로서 남게 되는 것을 경계한다.

나의 창작방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 이외의 누구를 썼는가 하는 것을 종잡을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일단 추측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어 버리면 그 사람은 방관자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그 형상이 혹시 자신 아니면 더 나아가 모든 중국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바로 여기서 반성의 길이 열리게 된다.¹⁵⁾

그러므로 魯迅이 〈아큐정전〉에서 이야기하는 아큐의 소외극복, 즉 정신승리법은 하층민중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것은 수천 년 봉건제국의 문화가 빚어낸 보편적인 사회현상이었던 것이다. 魯迅은 당시 중국문단에 유행하기 시작하던 리얼리즘의 실천적 성과였던 문제소설보다 독자들에게 더욱 심도 있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요구는 바로 그들의 불행을 동정하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않는 우매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분노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현실을 문학작품 속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늘의 과제와 그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날의 독자와 사회에 있다.

14) 브레히트, 김기선 역, 《서사극이론》, 한마당, 1989년, 69쪽.

15) 〈答《戲》週刊編輯者信〉, 《且介亭雜文》: “我的方法是在使讀者摸不着在寫自己以外的誰, 一下子就推諉掉, 變成旁觀者, 而疑心到象是寫自己, 又象是寫一切人, 由此開出反省的道路。”

문학은 그 사회의 거울이며, 그 사회를 반영한다는 리얼리즘의 오래된 명제에 브레히트는 단지 반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¹⁶⁾

魯迅은 낯설게하기라는 창작방법을 통해 아큐와 같은 형상은 이어지는 실패와 굴욕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를 직시하지 못하는 중국민중의 우매함을 묘사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사회와 국민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아큐와 억척어멈—臣民의 자기배반

폭군통치하의 臣民은 대체로 폭군보다 더욱 포악하다. 폭군의 폭정은 늘 폭군통치하의 臣民들의 게걸스러운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¹⁷⁾

아큐의 정치의식은 민중의 자기배반적 사고를 전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봉건사회의 정치투쟁은 권력층 내부의 이익과 권리의 쟁탈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념적 성향이 없는 농민봉기는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권의 부패를 되풀이하는 과정에 불과하였다. 결국 역사에 승자는 황제로, 패자는 역적으로 기록될 뿐이었다. 이러한 중국역사의 논리는 중국민중으로 하여금 역사에 대해 “영원한 희극의 관객”¹⁸⁾으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결국 근대국가를 향한 이상이나 원칙 따위는 없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아큐의 정치의식은 그를 억압하는 지주계급과 동일하여 “혁명당은 반역이고, 반역은 그와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명당이 사형당하는 것을 대단한 구경거리라고 생각한다. 이는 〈藥〉에서 혁명당의 사형은 단지 아들의 폐병을 고칠 ‘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華老栓과 다를 바 없다. 아큐는 신해혁명의 소식이 未莊에 전해지고 趙太爺가 혁명당에 벌벌 떠는 것을 보며 자신이 혁명당인양 의기양양해 하며 마을을 돌아다닌다. 그는 혁명당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내 것, 내 맘에 드는 여자는 모두 내 것”이 된다고 기대한다. 아큐의 혁명에 대한 이해는 이처럼 계급적 보복극과 맹목적인 농민봉기

16) 브레히트, 이승진 역, 《시의 꽃잎을 뜯어내다》, 한마당, 1997년, 34쪽.

17) 〈暴君의 臣民〉, 《熱風》: “暴君治下的 臣民, 大抵比暴君更暴; 暴君的暴政, 時常還不能 壓足暴君治下的 臣民的慾望.”

18) 〈娜拉走后怎樣〉, 《墳》: “群眾, 一尤其是中國的, 一永遠是戲劇的看客”

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만일 아큐의 혁명이 성공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토지묘를 버리고 趙太爺의 저택으로 옮겼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기저기서 끊어모으는 것을 혁명이라고 여기는 혁명관은 농민의 자발적인 혁명의 특징이다. 아큐와 같은 농민들의 혁명은 교육과 지도가 없다면 이와 같은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¹⁹⁾

아큐는 억압받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향의식이나 대리만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아큐는 자신의 사고방식을 자신과 계급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趙太爺와 동일시하고 있다.

폭군의 臣民은 단지 폭정의 포악함이 다른 사람의 머리에 떨어지길 바랄 뿐이고, 자신은 이를 보면서 기뻐하거나, 그 잔혹함을 오락거리로 삼는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즐기거나 위로로 삼을 뿐이다. 이들의 재주라고는 '요행히 피하는 것뿐이다.'²⁰⁾

역사적으로 중국민중은 자신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남의 불행을 즐길 줄도 안다. 그들은 자신을 노예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혁명가의 처형장면을 구경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며 〈藥〉에서 묘사된 것처럼 이 '성대한 구경거리'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는 〈駱駝祥子〉에서 타락의 길에 접어든 祥子²¹⁾가 인력거 손님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팔아넘긴 혁명가 阮明의 처형장면을 구경하는 것보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9) 黃修己: “可以想見, 阿Q的革命如果成功, 用不了多久他就會拋棄土谷祠住進趙府的. 所以, 這無非想擊點東西式的革命, 帶着農民自發性革命的特色. 阿Q這類農民的革命, 如果沒有無產階級給與教育和領導, 大体上只能是這麼個革法.”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88년, 69쪽.

20) 〈暴君的臣民〉, 《熱風》: “暴君的臣民, 只愿暴政暴在他人的頭上, 他却看着高興, 拿‘殘酷’做娛樂, 拿‘他人的苦’做賞玩, 做慰安. 自己的本領只是‘幸免’.”

21) 타락의 길에 들어선 祥子에서 아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강건하고 부지런하며, 자신만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도시의 민중 祥子は 자신에게 닥치는 불행의 근원을 알지 못한다. 이는 30년 전쟁의 본질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억척어멈과 동일한 민중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황소의 난, 장헌충의 난, 태평천국의 난들을 겪어온 우리민족은 살해당할 줄도 알고 사람 죽이는 것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한다. 능지처참, 참수, 생기죽 벗기기, 생매장 등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며, 들으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소름끼치는 쾌감을 맛본다. 이들에게 총살이란 너무 간단히 끝나 부족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총살 외에도 조리돌림이란 덤이 있기 때문이다.²²⁾

이와 같이鲁迅을 비롯한 5·4시기 등장한 작가들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포악한 환경의 피해자를 자처하지만, 자신들이 폭정의 방관자인 동시에 부속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전혀 없다. 군벌정부라는 폭정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기대할 뿐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요행히 (폭정의 재난)을 피한 자들 가운데서 다시 희생물을 뽑은 다음, 폭군통치하에서 피에 굶주린 臣民들의 욕망에 갖다 바친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 다만 죽는 자는 비명을 지를 뿐이고 살아남은 자는 기뻐할 따름이다.’²³⁾

개인적인 분투로 자신만이라도 ‘안정적인 노예’로 살아가고자 했던 ‘폭군의 臣民’ 아큐는, 그러나 ‘요행히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희생물을 뽑는 재난의 제비뽑기’에서 결국 희생물로 낙점되고 만다. 더욱 큰 불행은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침묵하는 국민의 영혼을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중국은 혁신을 경험한 적이 없는 古國의 백성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전히 서로 통하지 않을뿐더러, 자신의 손조차도 자신의 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²⁴⁾

22) 〈駱駝祥子〉: “歷史中曾有過黃巢, 張獻忠, 太平天國的民族, 會挨殺, 也愛看殺人. 槍斃似乎太簡單, 他們愛聽凌遲, 砍頭, 剝皮, 活埋, 聽着象吃了水激凌似的, 痛快得微微的哆嗦. 可是這一回, 槍斃之外, 還饒着一段游街”

23) 〈暴君的臣民〉, 《熱風》: “從‘幸免’里又選出犧牲, 供給暴君治下的臣民的渴血的慾望, 但誰也不明白. 死的說‘阿啊, 活的高興着.’”

24) 〈俄文譯本‘阿Q正傳’序及著者自敘傳略〉, 《集外集》: “要畫出這樣沈默的國民的靈魂來, 在中國實在算一件難事, 因爲, 已經說過, 我們究竟還是未經革新的古國的人民, 所以也還是各不相通, 并且連自己的手也幾乎不懂自己的足”

중국민중 아큐가 가지고 있는 민중의 보편적 취약점은 전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물형상으로 브레히트²⁵⁾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의 ‘억척어멈’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 전쟁의 한 연대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작품은 전쟁이라는, 민중에게 떨어진 재난을 불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적인 계급상승의 기회로 착각하고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큐와 억척어멈이라는 인물형상은 자기배반의 삶을 살아가는 우매한 민중의 전형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쟁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의 삶, 즉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영역에서 재조명하고 있는 이 작품은 이런 점에서 30년대 말 이후로 민중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의 문학 세계 속에서 이 작품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며, 브레히트 자신도 이 작품을 “현실에 입각한realistisch”작품이라고 말하고 있다.²⁶⁾

鲁迅의 많은 소설작품 속에서 이러한 우매한 민중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인물형상은 주로 농민의 형상으로 표상화되고 있다. 〈아큐정전〉에서도 아큐를 비롯한 未粧의 농민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인물형상을 통해서 〈아큐정전〉은 리얼리즘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허구나 상상에 기초한 창작이 아닌鲁迅의 성장과정과 체험이 작품 속에 녹아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鲁迅이 그의 작품에서 ‘농민’을 소재로 선택한 것이 신해혁명을 전후한 시기 중국이라는 ‘전형적인 환경 속의 전형적인 인물’을 묘사하려는 일종의 ‘익숙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브레히트는 민중이 겪는 불행에 대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에 내재된 허위의식을 인식하며 이를 비판하기 위한 대상은 농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농민, 상인, 자영농 등 어떠한 형상이든 민중의 속성에 내재된 인간의 보편적인 저열함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鲁迅의 작품 가운데서도 인간의 보편적 허위의식을 비판한 작품들은 적지 않다. 이러한 작품은 대체로 〈아큐정전〉처럼 짙은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25) 독일 아우구스부르크의 부유한 공장장의 아들로 태어난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는 그의 독특한 극이론과 30여 편이 넘는 희곡작품들로 현대 연극사에서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그가 창작활동을 시작하던 192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제국의 붕괴로 독일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가 대혼란에 휩쓸린 시기였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브레히트는 1924년 거주지를 뮌헨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고 독일극장(Deutsches Theater)에 고용되어 본격적으로 극작가의 일을 시작한다.

26) 성현숙: 한일섭 편저,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년, 355쪽.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극이론들은 예술을 통해 역사와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의도와 정확히 맞물려 있다. 브레히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 그리고 세계는 변화가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술의 목표이자 의미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브레히트의 예술관은 20년대 문학연구회의 '인생파'작가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브레히트 서사극의 목표는 관객이 무대 위에 묘사된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환상에서 깨어나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 사회적 변혁을 위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다.²⁷⁾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브레히트의 긴 작품 활동기간 중 가장 전성기로 일컬어지는 1939년에서 1944년 사이 망명지(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에서 씌어졌던 작품이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30년 전쟁²⁸⁾의 한 연대기'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전쟁이 민중에게 닥친 불행이라는 생각보다는 계급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억척어멈'의 사고방식은 신해혁명의 혼란 속에서도 기회만 잡으면 계급상승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아큐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억척어멈'과 '아큐'의 비교 가운데서 時空(17세기 유럽과 20세기 중국)은 다르지만 오히려 외형과 본질이 모두 일치하는 민중의 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억척어멈과 군목의 대화 속에는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민중의 우매함이 전형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억척어멈: 지금 막 물건을 새로 사들였는데 평화가 발발했다고 말하지 마시오.

군목: 나는 당신이 그렇게 장사하는 것에, 그리고 언제나 잘 꾸러나가는 것에 놀랄 때가 많았소. 사람들이 당신을 억척어멈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겠소.

억척어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척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버림받았기

27) 브레히트 서사극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의 작품은 단지 정치극 교훈극에 불과한, 예술성이 떨어지는 작품이라는 비평을 받게 된다.

28) 1618-1648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종교, 영토, 왕권과 통상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벌인 전쟁. 30년 동안 유럽전역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벌어진 전쟁이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독일의 소도시와 공국들이었다. 이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은 붕괴되었으며,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종식되었다. 브레히트는 30년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을 민중의 재난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우매한 정치의식을 비판하고 있다.

때문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상황에서는 필요해요. 또는 그들이 밭을 갈아엎거나, 그것도 전쟁 중에 자식들을 낳는 것도 그들이 억척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전망이 없으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려고만 해도 그들은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억척이 필요해요. 그들이 황제 한 명과 교황 한 명을 견뎌낸다는 사실도 엄청난 억척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²⁹⁾

팔아야 할 물건을 사들인 억척어멈에게 있어서 “평화의 발발”³⁰⁾은 “전쟁의 발발”보다 더 두렵게만 느껴진다. 억척어멈과 군목의 대화를 본다면 이 부분은 아큐보다는 〈駱駝祥子〉의 祥子를 연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祥子の 경우 5.4운동의 발상지 북경에 살면서도 정작 정치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을 발휘하여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군벌전쟁의 이유 따위는 관심 없다. 祥子 역시 몰락한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농민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이 어떻게 농촌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지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고, 오로지 돈이 되는 일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는 단지 군벌전쟁의 재난이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수천 년 봉건통치하에서 중국의 민중들은 때로는 아큐처럼 교활하고 게으르게, 때로는 祥子처럼 ‘억척스럽게’ 삶을 유지해 왔다. ‘황제 한 명’과 ‘교황 한 명’을 모질게 견뎌온 억척어멈과 마찬가지로 魯迅의 작품 가운데서도 봉건문화의 억압을 견디어 온 중국여성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 브레히트가 억척어멈을 억압하던 황제와 교황은 곧 중국여성을 억압하던, 三從之道로 대변되던 夫權, 父權, 族權, 神權으로 치환될 수 있을 것이다.

〈祝福〉은 주인공인 祥林嫂의 비극적인 운명을 묘사하고 있다. 이는 夫權, 父權, 族權, 神權의 끝없는 압박 속에서 유린당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중국여성의 전형이다. 작품은 그녀의 비극적인 종말을 통해 봉건예교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에 대하여 강렬한 폭로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³¹⁾

29)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제6막.

30) “평화의 발발”은 일상적 언어의 모순명제이다. 브레히트는 언어적 재치를 통해 일상적인 관용구를 해체함으로써 풍자를 극대화하고 있다.

31) 黃修己: “〈祝福〉描寫主人公祥林嫂的悲劇命運, 這是在夫權、父權、族權、神權的交并壓迫下, 被摧殘至死的婦女典型。她的悲慘結局, 正是對封建禮教吃人的又一次有

억척어멈은 각각 다른 남자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카트린, 아일립, 슈바이처카스의 세 자녀가 있다. 그녀는 이들을 데리고 30년 전쟁의 혼란기에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전쟁터를 누비고 다닌다.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억척어멈은 차례로 자녀를 잃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불행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장사에만 몰두한다. 억척어멈의 첫째 딸 카트린은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폭행을 당해 얼굴에 남은 커다란 흉터 때문에 남자를 만나기 어렵다. 그녀는 병사들이 할레 시를 기습하기 직전 북소리를 울려 아이들을 구하지만 병사들에게 총살당한다. 큰 아들 아일립 역시 처형당했지만 억척어멈은 아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혼자 마차 끈을 둘러메고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을 따라 헤맨다. 억척어멈의 이와 같은 면모는 마치 〈明天〉에서 봉건적 질서체제에 충실하고 부지런한 單四嫂자가 잠이 들 때면 꿈속에서 죽은 아들을 만나게 되길 바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난은 단지 여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중이 겪어왔던 재난이었던 것이다. 억척어멈이 추구했던 억척스러운 생존의지만 있다면 밥은 굶지 않을 수 있는 ‘안정적인 노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다.

중국 백성들은 중립적이어서 난리 때가 되면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어느 편이든 상관없다. ……

一 노예가 되고 싶어도 되지 못한 시대

二 잠시 안정되게 노예가 되었던 시대

이 둘의 순환이 바로 ‘옛 유학자들이 말한 이른바 ‘一治一難’이다. 그러한 난을 일으킨 인물들이 훗날의 ‘臣民’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을 위해 길을 닦은 셈이며, ‘성스러운 천자를 위해 장애물을 제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³²⁾

그녀는 30년 전쟁의 종식은 오히려 자신의 ‘안정적인 노예’의 위치를 흔드는 것으로, 거북하게 느껴지거나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농경제 사회에서 농민들에게 자연재해 이상으로 치명적이었던 ‘전쟁’과 ‘징집’은 민중을 깨우치는 계기가 된 것만은

力控訴”,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88, 69쪽.

32) 〈燈下漫筆〉, 《墳》: 中國的百姓是中立的, 戰時連自己也不知道屬於那一面, 但又屬於無論那一面。…… 一, 想做奴隸而不得的時代; 二, 暫時做穩了奴隸的時代。這一種循環, 也就是“先儒”之所謂“一治一亂”; 那些作亂人物, 從后日的“臣民”看來, 是給“主子”清道辟路的, 所以說“爲聖天子驅除云爾”

아니었다. 오히려 많은 하층민중은 자기배반적 선택을 통해서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나고 했던 것이다.

Ⅲ. 맺는 글

1949년부터 몇 년 동안 관객들은 전쟁에 참여했던 억척어멈의 범죄, 즉 돈을 벌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그녀의 범죄적 요소를 보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그녀의 불행과 고통만을 보았을 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관객들)이 동참했던 히틀러 전쟁을 단지 끔찍한 것으로만 생각하였고, 그 때문에 괴로워했다. 단적으로 이는 극작가가 우려했던 바였다. 전쟁은 그들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깨달음을 얻을 수 없도록 무능력까지 가져다주었다.³³⁾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레히트가 걱정했던 바는 독일민중이 전통적 희곡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브레히트는 통치자들에 의해 각종 이데올로기로 덧칠된 전쟁의 본질에 대하여 민중이 각성하기를 바라며 전통, 충성, 애국 민족 등으로 정의된 통치이데올로기의 불합리성을 비판하고 있다.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은 왜 리얼리즘 작품인가? 이 작품은 민중을 위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리얼리즘적인 입장을 취한다. 전쟁은 모든 민족들에게 파멸이며 그 외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신적인 교양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다.³⁴⁾

魯迅 또한 중국민중이 그들에게 닥친 재난을 고전소설을 읽듯이 방관하는 태도를 질타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魯迅은 시대적 병폐의 본질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찰과 비판을 병행하면서 아큐의 불행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그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아큐는 미장에서 최하층의 농민이면서도 小D나 王鬍를 자신과 같은 동료로 의식하지 못했고, 이기적이며 게을렀으며, 그에게 있어서 혁명은 “맘에 드는 것은 모두 내 것”이라는 도적식 약탈행위의 변형에 불과했다.

도덕이 없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증오심으로 개인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

33) 성현숙 한일섭 편저,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5년, 357쪽.

34) 얀 크노프 저, 이원양 역, 《베르톨트 브레히트》, 인물과 사상사, 2007년, 172쪽.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자유라 할지라도.³⁵⁾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의 고독과 취약함을 규정하는 본질이고 결국 운명에 굴복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브레히트가 그려낸 역척어멈 역시 전쟁의 원인이나 자신의 계급적 취약점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결국 민중적 한계에 굴복하게 되고, '개인주의의 말종(個人主義的末路鬼)'이 되고 만다. 물론 아큐와 역척어멈이 민중으로서 당한 불행은 그들이 처한 시대와 환경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큐와 역척어멈은 봉건제국의 민중으로서 걸어왔던 자기배반의 길은 오늘날의 민중에게도 보편적 속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불행일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아큐라는 인물형상이 가지는 의미는 20년대 중국이라는 시공을 넘어서는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아큐의 민중적 보편성은 그의 이름을 그대로 21세기 한국사회의 민중으로 치환해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아큐나 역척어멈에게 이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위를 개선해 주려는 어떠한 혁명가들의 노력도 단지 '안정적인 노예'생활을 위협하는 거북한 움직임으로 느껴지거나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큐정전>에 나타난 리얼리즘적 의미인 동시에 비극적인 通時性인 것이다.

【參考文獻】

- 《魯迅全集》 제1권, 제2권, 제3권, 제6권, 제7권, 人民文學出版社, 1981년.
 《老舍文集》 제3권, 人民文學出版社, 1980년.
 黃修己 著, 《中國現代文學發展史》, 中國青年出版社, 1988년.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연희 역, 《역척어멈과 그 자식들》, 범우사, 2006년.
 베르톨트 브레히트, 김기선 역, 《서사극이론》, 한마당, 1989년.
 베르톨트 브레히트, 이승진 역, 《시의 꽃잎을 뜯어내다》, 한마당, 1997년.
 한일섭 편저, 《독일희곡의 이해》, 서강대학교출판부, 1995년.
 얀 크노프 저, 이원양 역, 《베르톨트 브레히트》, 인물과 사상사, 2007년.

35) <駱駝祥子>: “在沒有公道的世界里, 窮人仗着狠心維持個人的自由, 哪怕很小很小的一点自由”

- 엘리자베스 라이트, 김태원 이순미 역, 《포스트모던 브레히트》, 현대미학사, 2000년.
 한국브레히트학회 편저, 《브레히트의 연극세계》, 열음사, 2001년.
 칼 마르크스, 최인호 역,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제1권, 박종철출판사, 1991년.
 김경석, 〈'駱駝祥子'에 대한 몇 가지 再論〉, 《中國小說論叢》 제31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10년.

【中文提要】

魯迅의〈阿Q正傳〉與布萊希特的〈膽大媽媽和她的孩子們〉, 這兩部作品可說是善于描寫愚昧民衆的代表作. 這兩部作品都通過薰陶過封建文化的“民衆”的描寫, 深刻揭露“封建文化”對“民衆”的破壞. 我們所認為布萊希特是德國著名戲劇家文藝理論家. 魯迅作為改造國民性的思想家, 善于描寫中國人的靈魂和他們的“精神勝利病”. 這兩個作家的作品揭示了一個愚昧民衆如何走上末路鬼的道路, 又如何被社會拋入流氓無產者行列的過程, 以及這一過程中所經歷的精神毀滅的悲劇. 這兩部作品通過‘疏外’, ‘生疎化’的創作理論對民衆所帶的劣根性與他們政治意識關係的藝術思考. 同時善于描寫民衆政治意識的劣根性. 這兩部作品所描寫的主題是政治意識相同的. 他們的作品里所說的主題超越時空, 提醒民衆政治意識的劣根性. 這就是研究魯迅的〈阿Q正傳〉與布萊希特的〈膽大媽媽和她的孩子們〉的另一個觀點和新價值.

【主題語】

〈阿Q正傳〉, 〈膽大媽媽和她的孩子們〉, 疎外, 生疎化, 布萊希特, 民衆, 臣民

투고일: 2012. 1. 15 / 심사일: 2012. 1. 20~2. 6 / 게재확정일: 2012. 2. 10